

무주반딧불축제 준비 착착

22명으로 추진 지원단 구성 행사 준비 만전 내달 30일까지 프로그램 발굴 등 계획 수립

무주군은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무주반딧불축제 추진 지원단(단장 김상선)은 22명으로 구성됐으며 무주반딧불축제제위원회(위원장 이성만)와 함께 축제 준비에 주력하게 된다.

총괄운영팀은 예산 및 인력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축제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관리를 하게 되며 환경

체험팀에서는 축제장 환경조성 및 신비탐사 등 반딧불이 관련 행사를, 시설지원팀에서는 축제 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를, 홍보지원팀에서 축제 홍보를 맡아 진행한다.

군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는 지원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발굴 등 축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9월 4일까지는 반딧불이 출현 실태조사와 시설물 조성, 그리고 축제진행, 23일까지는 축제 마무리 등에 관한 업

무를 추진한다. 무주반딧불축제 추진 지원단 김영광 총괄운영팀장은 "2016 올해의 관광도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인 만큼 좀 더 특별하게, 성년을 맞이하는 환경행사인 만큼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환경지표 곤충 반딧불이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대표 환경축제를 기대해주시라"고 전했다.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하는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주최 무주군 / 주관 무주반딧불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 간 무주읍 등나무운동장과 예천문화관을 비롯해 반딧불이 서식지 등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의 삶 체험과 임바 아빠와 함께 하는 1박 2일 생태탐험 등의 체험행사,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반딧불이 주제관 등 참여행사, △반딧불이 환경심포지엄 등 학술행사, △낙화놀이·기절놀이 솟대세우기·디딤방아 맥이 놀이 등 무주를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 등이 마련된다.

그동안 무주반딧불축제는 정부지정 최우수축제, 한국지방자치브랜드 대상 축제, 코페스타가 선정한 가장 가보고 싶은 여름축제, 미국 CNN가 선정한 꼭 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선(섀넬)으로 꼽혀왔다.



장수군은 24일 가야문화유산 주민공감정책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1500년 잠든 가야문화 느낀다'

장수군, 주민공감정책 현장답사 실시

장수군은 지난 24일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 '1500년 잠에서 깨어난 장수가야사원의 일환으로 가야문화유산 주민공감정책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이날 장수가야 지킴이 50여명은 장수지역 가야문화유산인 장계 대적골 제철유적을 시작으로 삼봉리 가야고분군, 동촌리 가야고분군에 이어 남원지역 가야문화유산인 두리리·유곡리 가야고분군, 월산리 가야고분군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특히 조영일 군산대학교 박물관 조사업무팀장으로부터 현장 설명이 진

행돼 장수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듣고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답사코스인 대적골 제철유적은 고대철 생산시설 및 관련 유물(슬래그)가 4km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돼있다.

삼봉리·동촌리 가야고분군은 200여기의 고분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7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남원지역 가야고분인 두리리·유곡리, 월산리 고분은 50여기가 자리하고 있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금동신발, 갑옷, 청계호, 초두 등이 출토된바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반딧불축제에 참가한 관광객이 승어를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5일 '새참수레 2호점'이 삼례문화예술촌 내에 문을 열고 참가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건강한 밥상에 어르신 손맛을 더하다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내 '새참수레 2호점' 오픈

지역 농산물을 먹거리 재료로 활용해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농촌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슬로푸드 레스토랑 '새참수레 2호점'이 25일 삼례문화예술촌 내에 문을 열었다.

새참수레는 완주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와 '슬로푸드'를 접목해 지역 농산물 및 토속음식의 진가를 맛 볼 수 있는 곳으로, 봉동에 자리한 새참수레 1호점의 성공적인 사업운영 효과 덕분으로 2호점 문을 열게 됐다.

새참수레 2호점은 보건복지부

로부터 지원되는 3억원의 사업비와 함께 완주군의 대응투자비 1억원이 투입돼 330㎡규모(100석)로 조성됐으며, 완주군과 완주시니어클럽은 새참수레 1, 2호점이 완주군의 대표적인 고품질친화기업의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을 여는 새참수레 2호점은 2013년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 9만 2천여명 방문한 삼례문화예술촌을 찾은 관광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정당한 복지는 단 돈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

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찾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새참수레 1호점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고품질친화기업의 사례가 된 것처럼, 2호점도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소가 될 동시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완주 농산물의 우수성까지 널리 알리는 고품질 친화 레스토랑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군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 및 건강한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새참수레 2호점은 10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3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멘토링 교육으로 귀농인 조기정착 도와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는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멘토-멘티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멘토-멘티 교육)은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인들이 농작물 재배 기술을 익히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농촌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특히 귀농인이 원하는 농작물을 선정하고, 그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 내 선도농가 농장에서 매일 20일

이상, 5개월간 현장실습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라 초보 귀농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 참여 선도농가에는 매월 40만원, 실습농가에는 80만원의 교육 수당이 지급돼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귀농인, 선도농가로 구성된 7개 팀이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초보 귀농인 7명은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사전교육을 받은 후 지금의 선도농가 농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배우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용담호 환경대학 개강

진안군은 25일 용담호 환경대학 수강생 45명을 비롯한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용담호 환경대학 입학식을 가졌다.

용담호 환경대학은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이하 '자율수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주민 교육 및 홍보사업을 매년 추진해 지역사회의 환경리더를 매년 배출하고 있다.

이날 입학식에서 김지수 주민협의회장은 "그동안 용담호 자율수질관리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중에서도 환경대학 운영을 통해

많은 지역 환경리더를 양성해 온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자율관리의 지속여부는 지역 환경리더를 비롯한 주민들의 책임 있는 수질개선 실천 노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항로 진안군수와 이항기 진안군의회의장은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지역의 환경리더로서의 역할강조하며 자율관리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약속했다.

환경대학은 오는 6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6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환경분야 교수, 유관기관, 환경단체 등 전문가를 초빙해 수질관리와 주민 실천방향,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 금강수계 등 현장 체험학습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공원

무주쪽 구천파출소, 신병 비관 자살기도자 응급후송 생명 구조

무주경찰서(서장 한도현) 구천파출소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위해 알바를 하던 중 남자 친구의 이별 소식을 듣고 신병을 비관, 자살을 시도하는 김모(21, 여)씨를 적극적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구천파출소 이상연 경위와 이삼선 경사는 지난 23일 새벽 관내 순찰하던 중 실천면 삼거리 노리터펜션 앞 노상에서 "유리로 손목을 갖고 피를 흘리면서 죽고 싶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급기야 현장에서 출동하여 술에 만취되어 피를 흘린 상태로 쓰러져있는 자살 기도자를 발견하여 저체온증 증세로 생명의 위험을 직감, 출동한 119구조대에 또 다른 음독 자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긴급 후송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인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광수 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무주읍 반딧불체육관서 개최

제8회 목정 김광수 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25일 무주군 무주읍 반딧불체육관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무주군게이트볼연합회가 주관(회장 전의식)하고 전북도시가스(사장 김홍식)가 후원한 가운데 무주군 관내 22개 팀 2백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하성용 무주부군수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된 대회가 어느덧 8회 째를 맞았으며 '대회가 해를 더해 회원들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게이트볼 동호인 확산에도 기여해 1년 365일 건강한 무주, 활기로 넘치는 무주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사과 화상병 예방 총력

완주군은 지난 5월 중순 경기도 안성의 한 사과과수원에서 화상병 확진이 발표됨에 따라, 화상병 예방 및 유입차단을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중점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배화상병은 한번 걸리면 치료방법이 없고 병든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 무서운 병으로 식물방역법상 최상위로 분류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해충으로 지난해 경기도 안성과 충남 천안, 충북 제천시에서 발생해 43농가가 폐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월 화상병 방제 전용약제를 사와, 배 재배농가에 공급하여 동계방제를 실시하였고 농가 교육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화상병이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기온이 오를수록 전파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어 초여름날씨를 보이는 요즘에 더욱 세심한 예방과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장수군은 5월 가정의 달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2,016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태극기 게양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54개소 마을에 게양이 없고 12개소 마을에 국기봉이 없거나 태극기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오는 27일까지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은 곳은 새로 게양하고 바람에 찢기거나 햇빛에 색이 바래서 훼손된 태극기는 교체하는 등 태극기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운동을 추진했다"며 "현충일 당일 태극기 달기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